

# 조선시대 여성 머리장신구 디자인에 관한 연구

신미영\*, 박승철\*\*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 A study on the hair accessory design for women in Josun

Mi-Young Shin\*, Seung-Chul Park\*\*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Arts\*\*

**요 약** 현대사회는 디자인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만큼 모든 면에서 새롭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민족성이나 전통적 문화의 정체성이 자리하고, 현대 사회가 점차 세계화, 정보화가 되어감에 따라 한국 고유의 전통미를 재해석함과 동시에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 장신구에는 수식장신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인들의 머리모양과 머리장식이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발달하였다. 하지만 사회의 규범으로 인해 화려한 장식을 절제하고 정교함과 순박한 장신구들이 다수로 그들의 미적 욕구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시되는 현 시대에 부합되는 한국적 이미지의 창출로 현대인의 기호와 접목 될 수 있는 신개념 장신구가 독특한 민족성을 지닌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 그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한국의 미를 알리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 디자인, 전통미, 장신구, 머리모양, 한국적.

**Abstract** Unique and variety designs are required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s the design has predominant power. National character and identity of traditional culture support it, and it is far more important to reinterpret, succeed and develop unique traditional beauty as the contemporary continues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mong the accessories of women in Joseon, hair accessories accounted for the majority, and hair style and hair accessories were developed by their status and social hierarchy. But, due to social norm, they were reserved for luxurious accessories and expressed their aesthetic desire with refined and simple accessories.

The current period requires cultural identity. In this sense,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a new awareness of our unique identity, new concept of the traditional culture and spreading beauty of Korea by means of new conceptual accessories that can be connected with the preference of the contemporary with the creation of Korean style image.

**Key Words** : Design, DigitalTraditional beauty, tire, Hair, korean.

Received 4 August 2014, Revised 18 September 2014

Accepted 20 Octo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Park Seung-Cheol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Email: scpark@kongj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 목적

21세기 세계다문화시대에 동서양이 급속도로 변함에 따라 다양한 문화들이 통합되어 세계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현대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국제화 정보화라는 용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한국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계승하고 재창조하여 전통적 조형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여성의 머리 수식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미의식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활용한 장신구를 살펴보고 조선시대의 진문 서적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쓴 학회지, 선행연구논문, 문헌을 통해 한국적 전통미와 조선시대의 여성 수식과 머리장신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전통미의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 장신구에 대해 숙지하여 세계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장신구를 연구하는데 있다.

## 2. 본론

### 2.1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개념

#### 2.1.1 한국 이미지의 정립

한국적이라 함은 옛 것의 형식적인 모방이 아니라 순수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충돌을 생생하게 체험한 후 생겨난 역사적인 산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적 디자인은 세계의 디자인과 차별화를 주기위해 한국적인 정체성을 디자인에 반영하려고 다양한 곳에서 여러모로 시도 되고 있다.

즉, 오늘날의 한국적 디자인은 전통적 요소뿐만 아니라 근현대화에서 형성된 한국적 특성까지 해석되어 오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라는 시대적 추세 속에 문화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세계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특색을 강조하고 한국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국내의 모든 예술분야에서 늘 논의되어 왔다.

우선 예술분야에 논하기에 앞서 한국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한국적이란 국어사전에는 【관형사】 우리나라에 알맞고 고유한 것. 또는 우리나라의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표기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적이라 함은 우리의 문화유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 양식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적인 것 한국성(Koreaness), 한국적 특성(Korean character), 한국 고유디자인(Korea native design), 한국적 이미지(Korean image) 한국 브랜드(Korea brand) 등의 개념은 한국 상품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1990년대 이후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이다[1]. ‘한국적이다’라 함은 한국적 양식이라 이야기 되어 온 것들 중에 우리의 문화유산의 전통적 양식들과 관련된 것들이다. 또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현실이 반영된 것들이나, 우리 민족이 설명하고자하는 성향들을 모두 한국적이라고 통칭해왔다.

#### 2.1.2 한국 이미지의 특징

한국적 이미지는 현재 세계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적 디자인은 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그들의 주체성의 정립에 있어 그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이미지는 외국인들이 인식하는 단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담고 있는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우리의 전통성과 역사적 발전 속에서 이루어진 규범을 미적 가치를 바탕으로 재생성 되는 형상을 지칭한다.

한국적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심상, 감각 등 개념적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근원적 정서가 느껴지는 것으로 보편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2.2 한국 장신구의 역사

인간의 장신구는 이미 구석기 시대 이전부터 동물의 이빨, 뼈, 조개 등으로 장식을 만들어 주술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어 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사회가 안정되고 규범화 되면서 도구와 재료의 발달로 다양한 장신구들이 만들어 지면서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귀고리,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의 장신구가 발달하였다. 또한 제작과 착용에 있어 신분계급의 규제가 생겼으며 이러한 장신구는 고려시대로 계승되어 점차 금으로 만든 장신구가 발달하였다. 신분과 조복, 상복, 공복, 편복, 제복에 따라 장신구의 착용 또한 달랐다.

여성의 생활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선시대 이전의 여성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삼국시대에는 여왕도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외가의 성을 따르기도 했으며, 상속에 있어서도 남, 녀의 구별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儒敎思想)의 영향으로 부녀자들의 몸치장이 어느 정도 제한되었으며 상류층이 아닌 일반 서민의 경우 혼례복(婚禮服)을 입을 때만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금과 은의 사용이 제한되어 장신구의 소박함과 정교함이 더욱 돋보이는 시기가 할 수 있다.

### 2.3.1 조선시대 여성의 전통머리 형태와 조형미

전통 머리형태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조선시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도로 남존여비, 관존민비로 신분제가 경미 되었으며,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여자들의 부덕이 강조 되어 상류층이 아닌 일반 부녀자의 몸치장은 혼례 때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제한을 받았다.

또한 금, 은의 사용이 제한되어 삼국시대의 찬란한 금속 장신구 문화에 견주어 볼 때 우리의 금, 은 세공 기술은 퇴보되었으나 머리장식이나 노리개 등은 발달하여 그 정교함과 소박함이 미의 극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옷의 맵시를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식장신구를 머리에 착용 하게 되었는데 머리형태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수식장신구를 다르게 사용 하였다.

상류층이나 궁중에서 주로 사용하던 떨잠, 첩지, 대수, 가चे, 거두미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머리모양을 나타냈으며, 평민 부녀자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엷은머

리, 쪽머리 등을 하였고, 미혼여성들은 머리를 수발하기 위해 땡기를 하고 다녔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조선시대의 머리모양의 자료는 대부분 풍속화에서 볼 수 있다.

머리형태 명칭은 유래가 있어 정해지기도 하지만 명명되기도 하고, 관습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중구조의 상황으로 보면 상류층의 머리모양 명칭은 한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특징이 있다. 기록하는 방법에서도 이중구조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2].


### 2.3.2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모양







우리나라 여인들의 기본적 머리 모양은 기혼 여성은 엷은머리, 쪽머리 등을 하였고 미혼여성은 땡은 머리를 주로 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가체를 사용 하면서 신분별, 계급별, 의례용 등에 따른 다양한 머리 모양이 나타나게 되었다.

왕비, 왕세자빈, 내외 명부의 여인들은 의식용으로 대수, 거두미, 어여머리 등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머리술이 많은 여인을 미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처녀는 머리를 길게 땡아 땡기를 드리면 발뒤축에 툭툭 채일 정도가 되어야 아름답다고 여겼고, 부인네들은 머리에 엷은 것이 풍성할수록 자랑스럽게 여겼다. 조선 중기까지는 가체를 넣어 크게 엷은머리를 하였으며, 조선후기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의복과 머리치장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다.

민화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녀들의 엷은머리는 가체를 이용한 트레머리로서 최대한 풍성하게 연출되었으며 두 개의 쪽으로 만들어진 남자쌍게도 쪽머리의 변형으로 잠시 나타나기도 하였다[3].

<Table 1-1> Features of traditional hairstyle

Hairstyle name	Hairstyle	Feature
Daenggimeori		Hair style for single men and women. Part hair in the middle and twist three pieces of hair below ears into one.

Eoneunmeori		Braid hair from rear and fix it on the top of the head in round. Together with Jjokjinmeori, it is a typical style of married women
Jjokmeori		General style of married women. Hair is parted in the center of forehead and brushed back into one stride, which is knotted with Danggi and fixed with Binyeo
Cheopjimeori		Cheopji is attached to the center of part, and both hairs are finished with Jjokmeori. It is for queen and noble women
Eoyeomeori		High braid for ceremonial hair style. oyeomjokduri is put on the part and hair is fixed with Binyeo and Magaedanggi
Geodumi meori		Hairstyle for royal ritual. Deeguji is put on top of Eoyeomeori
Daesumeori		Gachae for royal ritual. Queen's hairstyle for ritual

### 2.3.4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 장신구

조선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 수식장신구의 성황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머리장식으로 는 여자들이 일할 때 머리 정돈할 목적으로 쓰는 수건과 함께 의례에 사용하던 화관과 족두리가 그것이다. 족두리와 화관이 의례

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남바위와 조바위는 방한용의 기능적인 목적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복을 기원하는 문양 등을 수놓거나 장식하여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고 즐겼다[4].




조선후기 수식장신구의 발달에는 경제정책 및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양반도 상업에 종사하고, 관영수공업체제가 민간수공업체제로 전환되어서 시장상품을 위한 공장제 수공업으로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고, 청의 기술도입과 역관·상인들이 수입상품을 모방해서 다채로운 상품으로 만들었던 당시 경제구조는 수식장신구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5].

여성수식 장신구 중 예장용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였으며 보편적으로 폭 넓은 계층에서 사용하던 비녀, 뒤꽂이, 떨잠 등은 조선시대 여성문화와 사회상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2-1〉 Traditional hair accessory

Accessory name	Hair accessory	Feature
Danggi		Decorative string tied at the end of braid hair. Single Red for women Black for single men
Gache		Attached wig to decorate rich hair for the women's hair decoration
Binyeo Duikkoji		Binyeo is an accessory to fix hair. Duikkoji is an attachment for top and bottom of Jjok
Cheopji		Hair hccsory for queen and noble women

〈Table2-2〉 Traditional hair accessory

Accessory name	Hair accessory	Feature
Ddeoljam		Ddeoljam is inserted to Eoyeomori or Keunmory as a flower shape with Chilbo, pearl and jewelry on top of round, square and butterfly shape plate
Geodumi		Hair shape is engraved and painted in black on the surface of Ddeoguji tree. It consists of two Bineyos which are fixed to hair one side and the other outside respectively
Daesu		Wig directly put on hair by making overall hair shape which is decorated with several Bineyos and Ddeoljam

리형태와 머리장식이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변하였음을 정리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장신구의 미적 특성을 규명하고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주술 하였다.

본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집권적인 정치제도와 유교적 도덕관념의 남성중심 가부장적 사상과 내외(內外)사상의 영향으로 여성의 부덕이 강조된 사회로서, 여성의 외적인 미는 남성을 과멸시키는 악으로 보았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美보다는 내면의 미를 철저히 중요시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여성의 외모와 치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미를 표현하는 장신구는 그 수량도 대단히 많을뿐더러 조형성에 있어서도 대단히 정교함을 보여준다[6].

조선시대 여성들이 비록 태어날 때부터 신분과 계급이 구분되었으며 남성의 지배하에 설정된 아름다움과 그 종속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미적 욕구와 욕망은 지배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머리장신구로 그들의 미적 욕구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결론

우리나라는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는 전통 머리형태와 머리장신구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발굴된 머리장신구나, 전통 머리형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민족의 미의식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심성과 자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천년 문화적 역사를 지켜온 우리민족은 예술분야에 있어 꾸준히 노력해온 점은 커다란 장점이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가 점차 세계화 및 정보화가 되어감에 따라 한국 고유의 전통미를 재해석함과 동시에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전통미의 개념과 한국의 장신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조선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를 살펴면서 여인들의 머

### REFERENCES

- [1]Ok-cheol Kim, Lala Project 01- Find uniqueness of our design, Ahn Graphics, p.80.
- [2]Su-bin Yim, A study on the contemporary upstyle design with the motif of hair style in Myeongbu of Joseon, Hoseo University, 2011.
- [3]Bok-Shim Son,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 change of Korean up-style and reappearance, MA Thesis, Department of Beauty Science, Graduate School of Beauty Science Kwangju Women's University, pp.49, 2007.
- [4]Wan-joo Nam, Study on the symbolism of women's personal ornaments in the period of Joseon,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arts, Chung-ang University, pp.20, 2009.
- [5]Yu Jung Lee, A Study on Female Hair Ornaments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MA Thesis,

Dept. of Fashion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2008.

[6]Hyun-joo Lee, A Study on the Aesthetic Value of Traditional Women's Ornament in Jose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eauty Coordination, Daegu Health College, Korea Body Art and Beauty Association, Vol. 3, No. 3, pp. 11, 2002.

#### 신 미 영(Shin, Mi-young)



- 2009년 2월 :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학사)
- 2011년 2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부 (석사)
- 2014년 8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부 (박사수료)
- 관심분야 : 금속공예, 주얼리디자인
- E-Mail : 9999sin@daum.net

#### 박 승 철(Park, Seung-cheol)



- 1987년 2월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학사)
- 1997년 8월 : 원광대학교 산업대학원(석사)
- 2009년 2월 : 러시아헤르젠 대학교 박사과정수료
- 1997년 9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주얼리전공 교수
- 관심분야 : 귀금속공예, 장신구디자인
- E-Mail : scpark@kongju.ac.kr